

나이지리아, 반군과의 휴전협상으로 일시적인 안정 회복

□ Asari가 이끄는 니제르 델타 반군, 외국 기업에 대한 공세

- 나이지리아의 니제르 델타 반군(Niger Delta People's Volunteer Force)은 9월 27일 성명을 통해 모든 외국계 원유회사 직원들은 델타 지역을 떠나도록 하였으며, 나이지리아 최대의 원유회사인 Royal Dutch Shell Group과 이탈리아의 Agip에 대해 동국 정부와의 결탁을 통해 자국민의 이익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긴장이 고조.
- 반군 지도자인 Asari는 자신들이 델타지역의 환경을 이유로 원유 파이프라인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나 10월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격대상이 될 것으로 선언
- 반군측은 정부측이 델타지역의 다수족인 Ijaw 족의 자치권을 보장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모든 외국 대사관은 니제르 델타지역으로부터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하였음.
- 델타지역의 주민들은 Asari를 지역 지도자로 추대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는 반군을 원유도범들의 밀수루트의 관할권을 노리는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음.

□ 오바산조 대통령의 요청으로 화해협상 진행

- 오바산조 대통령과 무장 반군 지도자 Asari는 1일 유전지대인 니제르 삼각주의 폭력사태를 막기위한 협상을 개시하였고, 무장반군인 인민지원군(NDPVF)을 이끄는 Asari와 델타지역 민병대의 지도자 아테케 톰은 무장해제뿐 아니라 군 조직의 해체 등을 규정한 6개항의 평화협정에 서명

- 그 결과 치안상황이 개선되면서 일단 큰 위기는 넘겼으나 니제르 델타지역의 자치권보장 등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립되지 못하였음.
- 그러나 이번 휴전협정으로 정부군과의 교전이 완전한 종식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의 충돌이 지속되어 불안요인은 잠재한 것으로 알려짐.

□ 국제유가 휴전협상후 일단 안정세

- 한편 반군측이 전면공격 움직임과 함께 배럴당 50달러 수준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화해무드 조성으로 일단 소폭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Royal Dutch Shell 등 국제원유회사들은 향후 추이를 지켜본 뒤 조업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원유생산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나이지리아는 OPEC회원국(제5위 산유국)으로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이며 일일 생산량은 2.33백만 배럴에 달하며 세계 제7위 원유수출국이자 미국의 제5위 석유수입상대국(2003년 총 2.5억 배럴 수입)임. 원유는 Shell, ExxonMobil, Total, Chevron Texaco, Agip 등 5개 다국적 메이저에 의해 생산되고 있음.
- 향후 나이지리아 사태는 긴장속에서 불안한 평화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따른 국가유가에의 영향도 유동적일 전망이나 항구적인 평화유지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국가별 나이지리아 원유 수출현황

단위 : 천 배럴

	1999	2000	2001	2002	2003
미 국	236,467	236,617	263,520	219,675	255,759
인 도	120,127	67,030	86,714	67,592	87,469
스페인	65,282	48,375	55,169	43,005	56,356
프랑스	50,388	37,654	46,209	35,432	43,748
서아프리카	39,725	26,559	34,417	25,075	32,980
계	702,470	603,656	674,900	545,100	673,050

자료 : EIU, *Country Reports*, 2004.

부부장 김종호
E-mail: jhokim@koreaexim.go.kr